

완도군, 4월 1일부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열린다!

한 달간 개최, 걷기·공연·체험 어우러진 오감 만족 봄 축제

전남 완도군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섬으로 청정한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지로서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슬로걷기로 걷기와 공연, 체험, 야간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방문객이 낮과 밤 모두 특별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4일(토) 개막식 '나비아, 청산 가자'를 시작으로 ▲웰컴 존 프로그램 ▲청산도 걷기 ▲서편제길·범바위·해양치유 프로그램 ▲투어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웰컴 존 프로그램'은 청산도에 첫 발을 내디디면 마주하게 되는 도청항 일대를 대기 공간이 아닌 즐거운 문화 체험장으로 탈바꿈하고자 ▲웰컴 달팽이 버스킹 ▲할머니 장터 ▲자이언트 유채꽃 포토존 ▲청보리 카페 ▲청산 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에 걸으리랴다'는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42.195km) 중 4코스 이상을 완주하면 완보증과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서편제길 프로그램'에서는 아름다운 유채꽃 밭을 배경으로 '봄의 왈츠' 콘서트와 소리 마당, 추억 놀이 마당, 봉송아꽃물들이기, 달빛 나이트 워크 등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범바위 프로그램'은 기(氣)가 세다고 알려진 범바위에서 팔찌를 만들고, '해양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신홍리 해변을 맨발로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청산도 이야기 버스 투어 ▲해안 치유길 걷기 투어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투어 ▲트린 달팽이 편지 ▲슬로길 보물 찾기 ▲SNS 인증 이벤트 ▲쭈깡 썰린지 등 다양한 투어 및 이벤트 프로그램도 있다.

축제 프로그램 및 세부 일정은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축제 기간에는 관광 안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낮과 밤을 아우르는 걷기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산도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면서 "산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청산도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진정한 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진도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순회 교육,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전문교육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영농 설계를 돕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지난 2월 27일에 조도면 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농업인 약 2,000명이 참여했는데,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농가의 강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장과 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7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재배 기술과 논콩, 대파, 고추 등 품목별 전문 교육는 물론, 농가의 편의를 위해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인증 의무 교육을 병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또한 함께 진행

해, 농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리 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의 특등 비율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은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 진도 농업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박운수 소장은 "이번 교육이 한 해 농사의 성공적인 설계를 물론, 진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교육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향후 농촌지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 행정통합 속 담양 발전 전략 모색 상생토크

광주 근교 그린벨트 해제·광역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현안 건의 제시

담양군은 지난 6일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생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민 25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따른 담양의 발전 방향과 지역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1부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에 따른 담양군 발전 방향과 상생 방안을 설명했다. 광주-대구 달빛철도와 제3순환도로(담양 대덕-화순) 확충 등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담양호와 추월산 등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담양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2부 질의응답 및 의견취지 시간에서는 북광주IC 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농촌지역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담양-광주 버스노선 운영 확대, 달빛철도 신속 추진 및 담양역 경전철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담양군에 기피시설 설치 우려에 대한 기준 마련, 농민 보호 정책 수



담양/이종욱 기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광주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시, '2026년 인구청년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20명 내외 모집, 3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시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시각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인구청년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인구청년정책 시민참여단은 광양시 인구·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며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워크숍 ▲정책 토론회 ▲선진지 견학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아이 양육, 청년, 중장년·노년 등 인구청년정책 관련 3개 분과에서 20명 내외이며, 위촉된 시민참여단은 위촉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인구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 방문, 전자우편(hbee0305@korea.kr) 또는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성별, 연령, 활동 경력,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3월 2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061-797-1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반영된 실질적인 인구·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1차 모집에 331명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에 총 331명이 접수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공실 물량 23호 대상으로 청년 유형에 한 해 모집했다. 접수자 331명 가운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추첨 대상자로 263명이 선정되면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화순군 외 지역 거주자는 92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1명 ▲20세 이상 29세 이하 140명 ▲30세 이상 39세 이하 101명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21명으

로 집계됐으며,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화순군은 오는 13일 군청 누리집을 통해 추첨 대상자와 추첨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 062-525-9775

영광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배부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지원정책 한눈에 확인

영광군은 군민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결혼·임신·출산과 영유아, 아동, 청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을 대상자별·분야별로 정리해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출산·보육, 교육, 청년정책, 일자리, 복지서비스, 건강·돌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내용을 폭넓게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 등에 안내서를 비치하고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군민의 날 행사 기간 중 '인구정책 홍보관'을 운영해 주요 인구정책과 관련 지원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